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13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담 당 자	• 행복한인생팀장 전상운 ☎440-2836 • 담당자 김숙경 ☎440-28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안전한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 노인일자리 참여자 350명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 안전사고, 직업병 예방, 응급처치 요령 등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 강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대표 어르신들 3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만 6,64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공익활동은 1년에 12시간의 활동교육을, 사회서비스형은 16시간, 시장형 사업단은 11시간의 직무 및 소양교육(안전교육 5시간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센터장 백종학) 전략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참여자 집합교육으로, 주제별 전문 강사와 교육과정으로 차별화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사업 규모가 적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도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참여기관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교육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취미생활과 더불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돈이 아니라 보람을 벌기 위한 일이 필요하다” 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참여에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박호성 강사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 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수칙, 사고발생별 재해예방 및 사례, 생활습관병(성인병) 예방 및 필수 건강관리 등에 대해 약 3시간동안 진행됐다. 교육과 함께 부대행사로 추진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활동 모습 및 생산품 전시전은 어르신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는 올해 일자리 사업에 예산 1,788억 원을 투입해 50개 수행기관에서 지난해 보다 595명이 늘어난 4만 6,646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조기등록 추진 평가에서 전국 1위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1위’ 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에서도 ‘전국 1위’ 우수도시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관련 사진은 교육(15시) 시작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